

하나님의 교회 Church of God

이사야 (Isaiah) 60:19-22

만일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택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If you could again choose the type of church that you would like to attend, what kind of church would it be? Would you choose a church that makes you happy? Or would you choose a church that makes you strong? Most people would choose the church that gives them peace and happiness.

이런 인간적인 심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61 장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병든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갇힌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음이 슬픈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라고 말입니다.

God knows us very well, especially what we think. So, He told us through chapter 61 of the Book of Isaiah why Jesus came down to Earth. It says, "The LORD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freedom for the captives and release from darkness for the prisoners."

모든 인간은 마음의 평안을 요구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심리를 나무라지는 않으십니다.

Everyone wants to have a peaceful mind. Everyone wants to be happy. Everyone wants to receive blessings from God. God does not blame us for having these thoughts.

덴버 시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인데 성령운동이 활발하고 매우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수년 전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라고 바꾸었습니다.

There is a famous church in Denver, Colorado. It is an evangelical church, a Full Gospel Church to be specific, in which the movement of the Holy Spirit is very active. This church changed its name a few years ago to 'Happy Church'.

그래서 왜 교회 이름을 갑자기 바꾸었는지 담임 목사님께 묻자,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후 많이 부흥하여 그 도시에 있는 백화점을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행복을 주는 교회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행복과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머문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Someone asked the pastor for the reason why they changed the church's name. He said that it was one of the motivations that came to the church. This church has grown very large, large enough to buy a mall in the city. In this we can see that people like churches that give them

happiness. However, there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know. If you come to church just to achieve your happiness and desires, it means that you are missing the essence of Christianity.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다음의 말에 매우 공감합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So C.S. Lewis said, “I am not looking for religion for happiness. If I want to feel happy, one bottle of wine is enough. If you are the one who is looking for religion to seek happiness, I wouldn’t want to talk about Christianity. That is because Christianity is not just an answer for people’s wish. It is higher.”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강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The essence of the church makes people happy, but there are more important things. One of them is helping people become a strong, faithful person. The essence of the church is to realize God’s will on earth through them.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600여 년 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21 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영영히 땅을 차지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Today’s scripture is a Word of prophecy that God proclaimed through the prophet Isaiah 600 years before Jesus came to earth. When we look at the scripture, we surely can know what kind of church God wants. Verse 21 says, “They (the people of God) will possess the land forever.”

이것은 눈에 보이는 땅을 소유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It does not mean that they will possess the land that they can see. It means they will possess the land by God’s good news. They are holy people who can change this world into God’s kingdom. The purpose of our life is to please God.

22 절을 보면 “가장 작은 집안도 가족 수가 천 명으로 불어나고 가장 가난한 집안도 강한 족속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아 보일지라도 작은 집안을 통해서 천명을 이루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몹시 약해 보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Verse 22 says, “The least of you will become a thousand, the smallest a mighty nation.” Even though to man something appears to be very small, God can perform miracles with it – even turning one into a thousand. Even though it may look very weak to this world, God makes

miracles with them to form a mighty nation. God says that He will accomplish His miracle through this church.

그러면 교회가 가져야 될 진정한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강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에 근거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What is the real image that the modern church should be formed in? The church that God wants is a community of a strong, faithful people. Jesus ordered his disciples according to the prophecy of Isaiah when He left this world,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제자란 거룩한 강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강자들입니다. 이들이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Disciples are strong, faithful people. Jesus didn't say that we should be almost a Christian. Jesus didn't say that we should say to Him, 'Lord, Lord,' with only our mouth. The people of the kingdom of God are strong, faithful people. They are those who will become a thousand and a mighty nation.

예수님께서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조건입니다.

Jesus said that if we want to be His disciple, we should prepare these things. First, we must deny ourselves. Second, we must take up our cross. Third, we must follow Him. These are the qualifications for becoming one of Jesus' disciples.

이 세상에서 제일 강자는 바로 자기 부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The strong man in this world is a person who denies themselves. If someone can deny themselves, they are a strong, faithful person. If someone can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Him, they are a strong, faithful person. This person is a disciple of Jesus Christ. This person is a disciple of Jesus Christ who will become a thousand and a mighty nation.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직접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2000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약한 자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셔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복음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봅니다.

The kind of church God wants is the place where these kinds of people are gathered. God said in verse 22, “In its time I will do this swiftly.” This means that God will never cease till he accomplishes this vision. During His last 2000 years, God has accomplished His work through

people like these. So much so, that there are thousands of thousands of churches in this world. Additionally, many of His holy servants are working to spread His Word throughout this world.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고 행복에 겨워 자기들끼리 뽕뽕 뭉쳐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일으켜 그들을 싹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퍼지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압니다.

When the early Jerusalem church was content with their church's growth, God caused calamity and scattered them. The positive outcome of this was that the Word of God spread through the Jerusalem Christians as they scattered and new churches were settled throughout the Mediterranean area.

하나님은 한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교회가 거룩한 강자인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돕고 배우고 섬겨야 합니다.

God does not want to be crowned in glory from only one good church. What God wants is for every church in the world to be filled with holy and strong disciples of Jesus. Therefore, we should help, learn and obey one another.

안디옥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교회가 성장하고 놀라운 축복들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내어 소아시아로 보내버렸습니다. 이처럼 그 교회만 잘되면 안 되고 다른 교회도 잘 되어야 합니다.

As soon as the early Antioch church received God's grace, the church flourished and received wonderful blessings from God. However, when the Antioch church member enjoyed their Christian life among themselves, God took Paul and Barnabas out of the church and sent them out to Asia Minor. Again, God does not want to grow only one good church, but rather all of His churches.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들과 다르십니다. 우리는 우리교회만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교회를 통해 온 세계 다른 교회가 다 잘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s thoughts and plans are much different from ours. We need to pray that not only our church, but also all the other churches in this world will exist well together. I pray that we become mature Christians by obeying God and participating in the spread of the kingdom of God.